

한가위 특집

추석 연휴,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라!

빠져드는 재미는 역시 역사소설!

올해 추석연휴는 토요일을 포함해 길게는 5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꽤 길다.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을 만나...

소설가 황석영은 신인이나 중견 할 것 없이 작품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을 "한국 문학의 흥흥기"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역사소설의 약진...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최근 우리 문학작품에서도 리얼리즘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개인적인 것을 아우르려는, 즉 거대 담론과 개인 이야기를 결합한 방식의 작품들이 나오고...



남한산성 김훈



추사 한승원



논개 김별아



천년의 왕국 김경욱

남한산성·추사·논개 등

한국문학 '신 흥흥기' 이끌어

있다"는 말로 역사소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실 경희대 교수는 최근 "요즘 소설가들의 역사소설에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하다. 재현과 환상을 즐기는 인터넷 세대의 문화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역사소설 시장의 활황을 설명해주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소설과 영화로 동시에 성공을 거둔 '다빈치 코드'의 이후 일반인들의 픽션(faction=fact+fic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역사소설의 인기가 TV나 영화에서 불고 있는 사극바람의 영향인지, 그 반대인지는 쉽게 가늠할 수 없으나 픽션이 쓰자 역사교양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추석연휴를 이용해 재미 없이 읽을 수 있는 역사소설을 정리했다.

▲남한산성=김훈의 '남한산성'은 출간 2개월 만에 10만부를 돌파해 관심을 모았다. '남한산성'은 17세기 몽고에 쫓긴 인조가 47일간 남한산성에 머무르다 오랑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치욕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 강한 선 속에서 벌어지는 말의 싸움, 민초들의 지난한 삶 등이 잘 그려져 있다.

▲리진과 리심=신경숙의 '리진'(전 2권·문학동네)과 김탁환의 '리심'(전 3권·민음사)은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와 결혼한 궁중무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두 작품 모두 기획 단계에서 영화화와 함께 진행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주한 프랑스 2대 공사의 회고록에 등장한 궁중무녀의 이름이 'Li-Tsin'으로 표기된 데서 두 작품의 제목이 어긋났다.

▲추사=한승원의 '추사'(전 2권·열림원)는 천재 예술가로만 알려진 추사 김정희의 삶을 다뤘다. 소설 속 김정희는 북학파로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외척의 세도를 제치고 왕권 강화를 주장한 개혁적 정치가였다. 신필(神筆)에 가려진 추사의 색다른 면모를 들추었다.

▲논개=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미실'(문이당)로 제1회 세계문학상을 받은 김별아는 2년 만에 '논개'(전 2권·문이당)

영화·TV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번쯤 책에 빠져 들어볼만

로 다시 돌아왔다. 막연하게 '책읽루서'에서 왜곡 장수를 꺼내고 남강에 뛰어든 기생'으로만 알려진 논개의 삶과 사랑을 재구성했다.

▲천년의 왕국=김경욱의 '천년의 왕국'(문학과학사)은 조선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네덜란드인들을 다뤘다. 소설은 제주 앞바다에 좌초된 네덜란드 상선의 선원을 앞에 나타난 조정의 사신이 '박연'이라 불린 네덜란드인이었다는 한 줄의 기록에서 탄생했다.

▲비람의 화원=조선의 천재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을 다룬 '비람의 화원'(밀린언하우스)은 '뿌리깊은 나무'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정명의 신작이다. 작가는 18세기 정조 시대 궁중화원으로 이름을 떨쳤지만, 김홍도의 기록이 각종 문헌에 남아있는 반면 신윤복의 삶은 단 두 줄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같은 소재임에도 전혀 다른 화풍을 보여줬던 두 천재 화가의 삶과 예술을 그린 예술소설이자 조선의 뒷골목을 묘사하는 풍속소설로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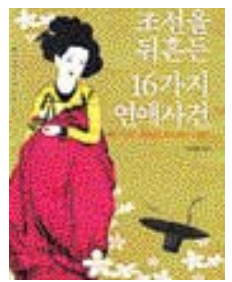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잘 몰랐던 조선의 이야기

역사 교양서도 인기



사도세자의 고백 이덕일



'연애사건' 이수광

소설에 역사 바탕이 부는 것과 함께 역사 교양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16~18세기 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당시 조선의 상황이 지금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엽기'나 '연애', '돈' 등 특정한 소재를 이용해 차별화하고 딱딱한 역사서가 아닌 '재미있는 책'의 이미지를 굳힌 것이 역사교양서의 약진에 힘을 불어넣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역사교양서를 살펴보자.

설현, 박현찬이 함께 쓴 '연애에 글쓰기를 배우다'는 소설과 인문교양서의 경계를 넘나든다. 조선 최고의 문장가인 연암 박지원 글의 표현 시비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연애의 글쓰기 비밀이 흥미롭다. 스토리를 즐긴다는 점 외에 연애의 글쓰기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실용소설'로 분류될 법하다.

'조선의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다산초당)은 '조선의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을 쓴 이수광의 후속작 성격의 띤다. 신분제와 유교 윤리 등으로 인해 개인이 철저히 억압당한 조선에서도 남녀의 연애는 막을 수 없었다. 궁중 스캔들에서 열녀문을 받은 기생의 로맨스까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최근 '사도세자의 고백'(휴머니스트) 개정판을 낸 이덕일은 '조선왕 독살사건'(다산초당),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조선 최대 갑부 역관(이상 김영사) 등을 통해 역사교양서 분야의 마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 작가는 '사도세자의 고백'을 통해 사도세자를 정실봉자로, 영조를 이상성격자로 결론 내린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들춰 진실에 접근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전봉관은 이 쓴 '럭키결성'(살림출판사)은 전작 '경성기담'이 근대 조선의 기담과 스캔들을 주로 다뤘던 것과 달리 '돈'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한 달 만에 1천부가 뛰어오른 팔강으로 인해 벗어난 소풍, 주식시장을 둘러싼 근대 한국의 이면 등 10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용봉(주)금보부동산
☎(043)430-6100
●북구 우산동 원흥(구동기소 뒤)
●북구 우산동 원흥(구동기소 뒤)
●북구 우산동 원흥(구동기소 뒤)

LC타워(주)
☎(07)972-8004
첨단지구 LC타워
최대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상가건물 매매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팔러 찾고 싶으시거나 임대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팔러 찾고 싶으시거나 임대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건물
●주월동 5의 병원의원매매
●9의 8천 빌딩
●9의 8천 빌딩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지의 값을 아는 사람들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현금투자 최우치
현금투자 최우치 긴급매매